

# 의학학술지에서 전문가심사 (**peer review**)와 심사위원

홍 성 태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 
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평가위원장

# 전문가심사 Peer Review

- 전문가심사(Peer Review): 학술지의 질적 수준 유지의 필수요소. 인쇄 전에 원고를 검토함.
- Peer: 배심원
- 의의: 학술지 게재 논문의 학문적 검증 단계.  
학술지의 정보원으로서의 수준을 결정
- 특정 논문의 출판에 대한 편집인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 제시
- 근거: 편집 또는 투고규정
- 심사자의 권위: 편집인이 부여

# 전문가심사 절차와 제도 운영

- 논문접수 후 편집인이 의뢰
- 논문, 심사양식, 반송봉투 동봉 또는 온라인
- 심사자는 심사 의견을 편집인에 송부
- 통상 2인을 선정하여 의뢰
- 심사자는 통상 익명으로 처리
- 편집인은 심사 의견을 존중하나 절대적이지 않음
- 투고된 논문의 출판 여부 결정에서 가장 중요
- 표절, 중복출판의 스크린에서 핵심적 역할

# 전문가심사의 속성

- 전문성: 편집인이 심사자를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.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환해야 함. 철저하게 전문가답게 시행함.
- 공정성: 학술적인 내용만 객관적으로 평가
- 신뢰성: 심사를 통하여 논문의 학술적인 객관성을 부여. 독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
- 윤리성: 편집인과 저자의 신뢰에 근거하여 원고를 미리 보는 권한을 가짐. 평가에만 활용. 이해관계에 해당하면 심사하지 말아야

# 전문가심사의 평가항목

- 학문적합성: 학술지의 학문영역에 해당하는가?
- 창의성: 내용의 원저성
- 논리성: 학술적인 논리의 성립
- 원고 작성: 논문으로 완성도가 있는가?
- 체재: 학술지의 체재에 맞는가?
- 이해도: 이해하기 쉽게 작성
- 윤리성: 연구윤리, 출판윤리의 준수

# 전문가심사의 기본원칙

- 독자의 입장에서 논문을 검토
- 학술지의 학문적 정보전달에 도움
- 편집인의 등재여부 결정에 필요한 분명한 의견 제시와 이에 대한 판단근거 제시
-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점까지 회신
- 저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정 의견 개진

# 전문가심사 제도 시행의 문제점

- 우수한 심사자의 부족
- 논문의 부족 또는 과다
- 심사자에 따라 과도한 시간 소요
- 연구집단 간의 과당경쟁
- 저자의 반발
- 심사자와 저자 간의 갈등
- 편집인과 저자의 갈등

# 심사자의 유형

- 권위형: 회신하지 않고 묵살하다가 독촉을 받고 나서 보거나 반송
- 무성의형: 읽지도 않고 판정
- 기본형: 형식적으로 읽고 최소한 의견 제시
- 과잉형: 지나치게 많은 수정을 요구하거나 논문을 새로 써주는 유형
- 적절형: 내용과 표현을 모두 적절하게 검토하여 의견제시



# 전문가심사 제도의 보완책

- 우수한 심사자의 적극 발굴
- 젊은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심사자 풀을 확대
- 다른 학회 소속 전문가의 심사 활용
- 영문논문의 경우 외국인 전문가 활용
- 심사자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인 되먹이기
- 심사의견에 대한 저자의 반론제기를 인정
- 심사자에 사례지급, 우대이용권 제공, 감사문 게시, 연하장 등 예우

# 우수한 심사자의 요건

- 편집인과 팀웍을 형성, 역할 분담
- 사심없이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자세
- 독자의 안목으로 읽고 평가
- 저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의견 표현
- 논문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
-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회로 활용
- 의견을 자세하게, 분명하게 개진
- 최근 중요한 문헌 인용을 점검
- 특히 같은, 유사한 내용의 논문 정보 제공

# 전문가심사 시행의 문제점

- 우수한 심사자 수의 부족
- 논문의 부족 또는 과다
- 심사자에 따라 과다한 시간 소요
- 저자의 반발
- 심의자와 저자 간의 갈등
- 편집인과 저자의 갈등
- 전문편집인의 부재

# 심사의견 통보의 유의점

- 편집인이 보낸 양식을 사용
-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연구결과물 평가임을 인식하여 표현하여야 함
- ‘실험을 다시 하라, 논문을 다시 작성하라’는 주문은 삼가해야
- 학술적인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
-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적해야
- 심사자도 심사결과 의견서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

# 전문가심사 에서 게재불가 판정하는 원인별 유형

- 원저의 학문적 독창성 결여
- 중복출판, 표절
- 원저의 연구방법 오류
- 증례의 희귀성 결여
- 결과의 해석오류
- 논리의 비약
- 논문의 근본적인 작성오류
- 논문의 학문 분야(scope) 부적합

# 심사자의 입장

- 내용을 잘 모른다
- 바쁘다, 시간이 없다
- 나도 잘 못하면서 남의 논문을 평가하기 미안하다
- 저자와 불편해지면 곤란하다
- 시험보는 기분이다
- 남의 논문 심의를 통하여 내 공부가 된다
- 편집인으로부터 전문가의 권위를 부여받아 기쁘고 영광이다

# 저자의 입장

- 내용을 잘 모르면서 심사의견을 함부로 준다
- 내 논문에 대해 감히 누가 뭐라고 ...
- 시험보고 채점한 답안지를 보는 기분이다
- 남의 논문을 열심히 읽고 좋은 의견을 주어 도움이 크다
- 경쟁자에게 원고가 넘어가서 자칫 불이익이?
- 논문출판의 가장 큰 고개를 넘었다!

# 국내 원저 논문 심사 주요 지적사항1

- 창의성이 없다
- 결론이 없거나 주장이 없다
- 목적과 결론이 다르다
- 논리가 빈약하거나 비약이 있다
- 중복된 기술이 많이 있다
  - 서론과 고찰
  - 도표와 본문
- 문장이 길다
- 문장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단어가 빈약하여 읽기 어렵다



# 국내 원저 논문 심사 주요 지적사항2

- 주제와 관련없는 기술
- 교과서적 내용이 기술
- 자료의 제시가 부적절
- 문헌의 인용이 과다
- 오래된 문헌 인용
- 주요 문헌 누락
- 인용 오류
- 문헌의 간접인용

# 전문가심사를 잘 하려면

- 편집인이 주문을 분명하게 해야 함
- 학회 회원들 (심사자, 저자, 독자)의 이해, 동의, 협조가 필요함
- 심의자 풀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(외국인 활용)
- 시스템으로 운영함
- 젊은 회원의 훈련: 논문 작성, 논문 비평, 전문가 심사 등
- 최근 지견을 확인하여 반영해야
- 주제어 검색을 통한 점검

# 전문가심사 결과판정의 고려요소

- 독자에게 흥미있는 주제인가?
- 창의성있는 원저나 증례보고인가?
- 처음 출판되는 추시논문인가?
- 창의성은 없어도 기록물로의 가치가 있는가?
- 외국에서도 인용할만한 내용인가?
- 게재거부의 경우 근거가 무엇인가?
- 수정하여 출판할만한 가치는 무엇인가?

# 전문가심사의 결과

- 결과통보서: 우수정게재, 일부수정후 게재, 대폭수정후 게재, 수정후 재심의, 게재불가
- 국내 학술지는 가급적 수정하여 출판하는 방향으로 진행
- JKMS: Case report를 사전 심사로 5%만 남겨서 심사를 시행하여 출판여부 결정
- NEJM: 일차 스크린하여 약 15%만 전문가심사로 넘어가고 실제 출판은 8% 수준으로 엄선함.

# 전문가심사를 통한 학술지 발전

- 좋은 논문 투고
- 많이 인용될 논문 출판
- 학술적인 냉정한 평가
- 편집권의 정립
- 조작, 중복출판, 표절, 논문쪼개기 (SALAMI), 논문포개기 (IMALAS) 등 자제, 감시
- 끊임없는 노력
- 온정주의 타파
- 학회 차원의 추진력

# 학술지를 발전시키려면

- 논문의 양과 질을 유지해야: 상호길항적
- 가급적 영문으로 발표해야
- PubMed, SCI에 등재해야: 학술지를 보내고 주기적으로 요청, 좋은 논문 발표
- 자기 학술지 논문의 인용율: 10% 선 유지
- SCI인용지수를 가급적 높이기 위한 전략(지난 2년간 논문으로 계산)
- 원문의 온라인 제공, KoreaMed Synapse or PMC에 참여
- 논문에 DOI부여

# 결론

- 많이 읽고 인용할만한 논문을 출판해야 학술지가 생존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!
- 편집인, 저자, 심사자, 독자가 서로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해야!
- 전문가심사는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전문가답게 저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!

감사합니다!  
우리 나라 의학학술지의 발전을 기원합  
니다!